

사료 공동 구매시 수입 통관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동일 선박을 통해 사료 원료를 공동 구매할 경우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기준으로 정밀 검정할 수 있도록 수입 절차를 완화한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정부는 사료를 수입 신고할 경우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정밀검정을 하는데 통상 일주일 이 소요된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한다.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통관 시간이 지연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하도록 수입 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 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하루에 약 2만 달러를 화주가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10월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 신고 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 사료 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9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AI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임상수의사와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해외 고병원성 AI 동향을 소개하고, '20/21년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H5N8형 고병원성 AI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발표자들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국제적 동향 분석(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 '20/21년 국내 H5N8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바이러스 특성(검역본부 이광녕 연구관), 역학조사 결과(검역본부 장우석 사무관), AI 백신 개발 국내의 현황(검역본부 강현미 연구관)에 대해 소개했다.

또 이날 AI 방역 관계관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상황, 백신 적용 사례, 국내 예찰 현황 등을 공유하고 올가을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고병원성 AI 대응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행사가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을 대비해 2021년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이전에 질병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AI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최신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